

체육교류의 증진방안

강 신 복*

<목 차>	
1. 서 론	(2) 남북체육회 담의 활성화
2. 남북체육교류의 전개과정	(3) 국제경기 단일팀 구성 회담의 본격화
(1) 초기 접촉단계	(4) 남북통일축구대회의 정 례화
(2) 중기 접촉단계	(5) 남북단일팀 구성의 실 현화
(3) 성숙 접촉단계	4. 체육교류의 방안
3. 남북체육교류의 평가와 전망	(1) 남북체육교류 필요성 의 인식화

1. 서 론

남북체육교류의 기본취지는 국토가 남과 북으로 양단되어 첨예하게 대립해 온 과정에서 비정치 분야인 스포츠와 체육 부문에서나마 교류를 가짐으로써 남북한 관계 발전의 원동력을 이루는 동시에 남북 교류·협력시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다.

체육교류를 위한 접촉단계와 그 전개 상황이 좀 다르긴 하였지만 동서독 간의 체육교류는 우리와 유사한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동서독은 그들이 공식적인 관계를 정립하기 이전인 1951년부터 55년까지 불과 5년동안에 200여회에 걸친 공식·비공식 접촉과 회담을 가졌고, 이를 통해 1956년 1월 동계올림픽에 단일팀 창가를 성사시킴으로써 동서독관계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동서독은 1957년 한해동안 체육분야에서만 무려 1,530회의 교류를 실현 할 수 있었다.

남북한과 동서독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분단국에 있어서의 체육교류가 이처럼 중요성을 지니게 되는 이유는 분단의 원인이 되었던 이념적 갈등과

*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

감정적 적대감을 해소하는데 직접적인 효력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스포츠란 단순히 비정치적 문화현상일 뿐만 아니라 몸과 몸이 부딪히는 인간적 접촉을 통해 서로의 실체를 확인하고 포용하는 결과를 낳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이학래 외, 1991:21).

남북간 체육교류를 위한 최초의 접촉은 1962년 소련을 비롯한 동구 공산 국가들의 강압에 승복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제18회 동경올림픽대회에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참가할 것을 권고하고 한국올림픽위원회(KOC)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로부터 지금까지 30여 차례 진행되어 온 남북간의 체육교류를 위한 회담은 북한의 태도에 대한 우리측의 대응자세를 기준으로 하여 초기접촉단계, 중기접촉단계, 성숙접촉단계의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체육청소년부, 1991 a).

초기접촉단계는 1963년 동경올림픽대회 남북단일팀 구성과 제35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1979년, 평양개최) 참가를 위한 회담기간으로서 체육부가 창설되기 이전 단계이다. 이 기간동안에는 남북이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북한의 정치적 공세 및 체육회담의 정치선전에의 이용에 우리측이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남북체육회담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중기접촉단계는 1982년 체육부가 창설되고난 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과 서울올림픽대회 그리고 제11회 북경아시안게임을 포함한 기간이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보다 적극적인 전향자세로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북한의 경직적인 자세와 상호 신뢰의 부족으로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하였다.

성숙접촉단계는 제11회 북경아시안게임 기간중 개최된 남북체육장관 회담 이후 현재까지이다. 이 단계에서 우리측은 보다 큰 자신감을 갖고 양보하면서 서울과 평양에서 남북통일 축구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하여 다져진 남북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축구 및 탁구종목에서 단일팀을 구성하여 국제대회에 참가함으로써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남북체육회담이 비로소 결실을 맺기 시작하였다.

2. 남북체육교류의 전개과정

본 장에서는 위에서 구분 제시된 체육교류를 위한 3개 접촉단계별 전개과정을 특징적 양상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초기접촉단계

1948년 무렵까지는 광복 전의 전통을 이어 경·평축구(京·平蹴球) 및 농구 등 교환경기를 몇 차례 실시한 바 있었으나, 그 뒤로 남북관계가 점차 악화되면서 모든 체육교류는 사실상 중단상태에 들어갔다.

한국은 1920년에 창립되어 38년에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된 조선체육회의 기능을 계승하여 대한체육회를 발족하였고 47년에는 올림픽위원회를 정식으로 발족하여 동년 6월 24일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한편, 북한은 54년 조선체육지도위원회를 조직하고 IOC가입을 꾸준히 시도하였으나, IOC가 1개 국가에 1개 올림픽위원회(NOC)의 원칙을 들어 부정적인 견지를 취함으로써 그때마다 북한측의 가입은 좌절되었다(대한체육회, 1990:395)

북한은 6·25전쟁 중인 1952년에 IOC에 올림픽 참가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IOC의 비회원국이며, 6·25전쟁을 도발한 북측의 요청을 일언지하에 거부하였다. 한편 북한은 IOC총회 때마다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을 등에 업고 IOC가입 및 올림픽참가를 요구하였으며, 마침내 제59차 IOC총회(1962년, 모스크바)는 제18회 동경올림픽대회에 한국이 북한과 단일팀을 구성 참가할 것을 권고하였고 KOC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최초로 역사적인 남북체육회담이 개최되게 되었다(체육청소년부, 1991a).

이와 같이 64년 동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여 파견할 목적으로 사상 최초의 남북체육회담이 열리게 된 것이다.

남북은 스위스(1963. 1. 24, IOC 로잔본부사무실)와 홍콩(1963. 5월)에서 각각회담을 갖고 남북단일팀의 단기(오륜마크 아래 “KOREA”표기), 단가(아리랑), 선수선발원칙(동서독의 예에 따름) 등 일부사항에 합의하고 63년 7월 제2차 홍콩회담을 갖기로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제1차 홍콩회담 이

후 귀환보고 및 방송을 통하여 회담진행 상황을 왜곡선전하고 한국을 비방, 중상하였다. 제2차 홍콩회담을 위한 연락관 회의에서 우리는 북측에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 공개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북측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결국 최초의 남북체육회담은 결렬되고 말았다.

이 회담을 통하여 북측은 그들이 당초에 시도하던 대로 단일팀 구성보다는 동경올림픽대회 단독참가권을 획득하고자 한 기도를 충족시키고, 나아가서 63년 서독 바덴바덴에서의 제60차 IOC총회에서 정회원으로 승인받는데 성공하였다.

72년 7월 4일 남·북한 사이에 역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됨에 따라, 8월 29일에는 평양에서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기에 이르렀고, 이어 같은해 11월 30일에는 남북조절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남·북·북단 4반세기만에 처음으로 남북한 사이에 공식대화가 열리게 되었다.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1주일 후, 북측 오현주 체육지도위원장은 김택수 대한체육회장에게 제20회 뮌헨올림픽대회에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할 것과 앞으로 각종 국제대회에 단일팀으로 참가할 것을 제의하는 담화를 평양방송을 통하여 발표하였다(대한체육회, 1990:398).

그러나 뮌헨올림픽대회는 8월 26일의 개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단일팀 구성은 도저히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남북한 단일팀 구성의 불가성을 북측에 통보하고 그대신 한민족의 단합된 우월성을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합동응원단을 구성하여 남북한 팀을 공동으로 응원하자고 북측에 제의했다. 그러나 북측은 남측의 합동응원단 구성제의를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73년 8월 소련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소련이 처음으로 우리 선수단을 초청한데 반발하여 북측 자기들 선수단의 동 대회 참가를 기권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북측은 동년 8월 28일 남북조절위원회를 비롯한 남북 대화의 전면 중단을 선언하였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대한체육회는 다음과 같이 몇차례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에 북측을 초청하였으나, 북측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대한체육회, 1990:399).

—74년 서울 국제유도선수권대회

—75년 서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76년 축구교환경기 제의

—78년 서울 세계사격선수권대회

—79년 서울 세계농구선수권대회

—79년 서울 세계공기총사격대회

79년 4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평양에서 제35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측은 국제탁구연맹을 통하여 대회참가를 위한 비자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동 대회에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 참가할 것을 제의함으로써 판문점에서 쌍방 탁구협회간에 4차례에 걸친 회담이 개최되었 다(체육청소년부, 1991a). 당시 국제탁구연맹의 회장국인 우리측은 우선 한국선수단의 대회참가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북한은 단일팀 구성 원칙에 먼저 합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결국 남북 쌍방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회담은 성과없이 결렬되고 말았다. 그후, 대한탁구협회는 국제연맹을 통하여 평양대회참가 실현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였으나, 북측의 거부로 끝내 참가하지 못하였으며, 이로써 북측의 단일팀 구성제의 또한 스포츠 정신을 유린하고 정치선전의 목적에 이용한 오점을 만천하에 노정한 셈이었다.

(2) 중기접촉단계

80년의 모스크바 올림픽대회를 7개월 앞둔 79년 12월 27일, 북측 김유순 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은 박종규 대한체육회장 앞으로 서신을 보내어, 제22회 모스크바 올림픽 대회에 남·북한 단일팀의 참가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회담을 판문점에서 갖자는 제의를 해왔다.

이에 대한체육회장은, 모스크바 올림픽대회 참가를 위한 단일팀 문제는 시기적으로 축박하여 불가능하니, 앞으로 예견되는 모든 국제대회에 단일팀으로 참가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우선 서울과 평양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에 상호 초청하며 이를 위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남·북교환경기의 실시를 정식으로 제의하였다.

그 뒤, 우리측은 서울에서 개최된 다음 국제대회에 북측을 초청하였으나, 일체의 반응이 없었다(대한체육회, 1990:401).

—80년 국제역도코치 및 심판강습회

—80년 서울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83년 서울 아시아핸드볼선수권대회

이 무렵, 국제적 분위기는 서방국가들이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규탄하여 모스크바 올림픽 대회를 보이콧 하는가 하면, 남·북관계에서는 북한이 저지른 베마 아웅산 폭탄테러 사건의 발생을 비롯하여, 영화인 최은희·신상옥 부부 납치사건 등으로 어느 때보다도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 있었다.

KOC는 1981년 6월 제23회 로스엔젤레스 올림픽 대회에서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하기 위한 남북체육회 담을 북한에 제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대회를 불과 4개월 앞두고 84년 2월 돌연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자고 제의하여 왔다.

우리측은 이를 1981년 대북제의에 대한 호응으로 간주하고 수락, 판문점에서 3차례의 남북체육회 담이 열리게 되었다(체육청소년부, 1991a).

당시 체육부는 창설된지 불과 1년여에 불과하여 남북관계에 아무런 노우하우(know-how)를 갖고 있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남북대화사무국과 국토통일원의 주도하에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단일팀 구성과 체육교류를 위해서는 상호신뢰 회복과 선수의 신변 안전보장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북한이 저지른 베마 랭군사건과 신상옥·최은희 납치사건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동 사건들을 “자작극”, “흑색선전”이라고 주장하다가 제3차 회담에서는 우리측이 체육회 담을 “정치화”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제4차 회담 개최를 거부한채 동년 6월 2일 로스엔젤레스 올림픽 대회 불참 성명을 발표하였다.

84년 9월 30일 바덴바덴에서 제24회 올림픽 대회의 개최지를 결정하는 제84차 IOC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서 서울시와 일본의 나고야(名古屋) 사이에 유치를 둘러싼 각축전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렇게 총회가 진행중인 바덴바덴에서 북측은 각 회원국 IOC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분단상태에 있는 한반도의 남한에서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것은 현재의 분단상태를 고착화하려는 음모라고 하면서 서울 유치에 대한 반대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대한체육회, 1990:403).

그런 가운데 52:27이라는 압도적인 표차(票差)로 24회 올림픽이 서울로 결정되자, 북측은 이에 충격을 받고 올림픽 개최 저지를 위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남한 국내의 당시 정치적 불안을 호기로 삼아 맹렬한 선전 활동을 전개했으며, 급기야는 KAL기 폭파사건이라는 엄청난 야만적 도발을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또 소련을 위시한 중국 등 공산권

국가들의 서울올림픽대회 참가가 불확실한 상태에 있는 시점에서, 북한은 공산권은 물론, 제3세계권에 대하여도 서울올림픽을 반대하도록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북측의 이와 같은 활동과는 관계없이 우리측은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가 모체가 되어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제반 준비를 차차 진행하면서, 한반도의 역사에서 처음 열리는 서울올림픽을 한국 국민뿐 아니라 북한을 포함한 온 민족의 영광으로 승화시키고자 어떠한 형태로든 북한이 동참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그리하여 북측에 수차에 걸쳐 남북한 체육교류를 위한 회담제의가 있었고 몇 차례의 회담개최가 이루어 졌으나 남북간 군사적 대치 및 정치적 대립이라는 상황과 맞물려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채 결렬되곤 하였다. 그러나 국민적인 여망은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이 화해와 신뢰의 마당을 구축, 평화통일의 기틀을 다쳤으면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체육회담 과정에서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양보하여 북한이 서울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장이 열리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러한 뜻에서 우리측은 85년 10월부터 87년 7월까지 스위스 로잔에서 IOC 중재하에 북측과 4차례에 걸쳐 회담을 갖기에 이르렀다.

4차례에 걸쳐 IOC중재로 열린 로잔 남북체육회담에서 북측은 24회 올림픽의 남북 공동주최를 요구하였고, IOC측은 올림픽 현장의 범위내에서 남북한이 합의하는 수의 종목을 북측에 배정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북측에 배정 할 종목선정에 있어서 우리측이 대폭 양보하여 탁구, 양궁, 여자배구의 전 경기 및 축구 1개조 예선, 기타 1개 종목이라는 IOC 2차 중재안까지 수락 할 용의가 있음을 보였으나, 북측은 IOC 현장에 위배되는 공동주최 요구만을 끝내 고집하였다.

북측은 급기야 5차회담 개최를 회피하고 시간을 끌다가 88년 1월 서울올림픽불참을 선언함으로써 2년여를 끌어온 남북체육회담을 사실상 결렬시키고 말았다.

북한 NOC 위원장 김유순은 88년 12월, 북경에서 열리는 제11회 아시아 경기대회에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 출전할 것을 제의하고, 이를 우리측이 수락함으로써, 판문점에서 남북체육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남북은 유례없이 진지하고 양보하는 자세로 회담에 임하여 북경아시안게

임의 남북단일팀 구성 참가와 관련한 10개 항의 기본사항과 단일팀 공동위원회 구성운영방안에 대하여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체육청소년부, 1991a). 그러나 우리측은 그동안 남북간에 체육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고, 북측이 태도를 돌변할 경우 우리의 북경아시안게임 참가가 불가능해 질 것을 우려,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신뢰분위기를 조성하고 합의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보장방안을 북측에 제시하였다. 그러나 북측은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단일팀 안은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

비록 남북은 북경아시안게임 남북단일팀 구성에 실패하였지만 9차례의 본회담과 6차례의 실무회의를 통하여 단일팀 단기, 단가, 선수단 호칭 등에 합의를 이룸으로써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단일팀을 성공적으로 구성하는데 밀거름이 되었다.

(3) 성숙접촉단계

북경에서 개최된 다이내스티컵 대회(90.7.27~8.3)에 참석한 김용균 체육부차관은 강득춘 북측 국가체육위원회 부위원장에게 해방후 중단되었던 경평축구대회의 제개를 제의하였고, 북측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우리측 제의를 받아들였다(체육청소년부, 1991a).

북경에서 개최된 아시안게임에 남북이 모두 참가하게 됨에 따라 남북체육장관간의 회담이 개임전에 개최될 것으로 기대되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체육부는 과거 30여년에 걸쳐 30여 차례나 남북체육회담이 계속되어 왔으나,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채 끝난 것은 남북 쌍방이 서로 불신의 벽을 허물지 못한 채로 자기의 주장만을 되풀이 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양보하여 남북체육교류를 성사시키기로 하였다.

한편 제2차 남북 고위급회담이 90.10.16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어 과거 어느때 보다도 남북간에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었다. 역사적인 남북체육장관 회담은 90년 9월 23일 중국의 북경호텔 5층에서 정동성 체육부장관과 김유순 북한 국가체육위원회 위원장간에 열렸다.

이 회담에서는 주요 국제경기대회 남북단일팀 구성 참가문제와 남북체육교류문제가 동시에 협의되었다. 남북은 이 회담에서 일제치하에서 민족혼을 일깨우는데 커다란 기여를 한바 있는 경평축구대회를 남북통일축구대회로 개

최 할 것을 합의하였다.

남북체육장관 회담에서 논의된 남북통일축구대회의 성사를 위하여 장충식 북경 아주대회 한국선수단장(남북체육회 담당 우리측 수석대표)과 김형진 북한 NOC부위원장(남북체육회 담당 북측 수석대표)은 수차에 걸쳐 협의를 갖고 남북통일축구대회를 90년 10월 11일 평양, 90년 10월 23일 서울에서 각각 개최하기로 정식 합의 하였으며, 이를 9월 29일 북경 메인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였다. 이로써 분단 45년 만에 역사적인 남북간 직접 체육교류로서 남북통일 축구대회가 개최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합의에 따라, 우리측 남자선수 20명, 여자선수 18명, 취재기자 30명, 그 밖의 인원 8명은 90년 10월 9일 정동성장관 인솔 아래 북경에서 북측이 제공한 조선민항 편으로 평양으로 직행하여, 11일 평양 5·1경기장(綾羅島)에서 1차 경기를 가진 후, 14일 판문점을 통해 서울로 귀환하였다.

한편, 북한선수단은 10월 21일 남녀선수 38명, 보도기자 32명, 그 밖의 인원 8명이 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김유순의 인솔 아래 판문점을 경유하여 서울에 도착해서, 10월 23일 잠실종합경기장에서 2차 경기를 치르고 25일 평양으로 귀환하였다.

이번 교환경기에서 우리측은 평양에서 1:2로 패배했고 서울경기에서 1:0으로 승리를 거두었으나, 이 경기야말로 경기성적에 관계없이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남·북사이에 실현된 체육교류로서 온 국민의 큰 관심을 모았다.

남·북통일축구경기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측 체육부장관과 북측 김유순위원장 사이에서는 모처럼 이루어진 통일축구대회의 정례화(定例化)를 비롯한 남·북체육교류의 실현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는데, 그 결과로 이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한 남·북체육회 담당 재개에 합의하고 북측 선수단이 귀환하는 10월 25일 다음과 같은 공동합의문을 발표하였다(대한체육회, 1990).

□ 공동합의문

남측의 정동성 체육부장관과 북측의 김유순 국가체육위원장 겸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1990년 10월 24일 서울에서 합의를 갖고, 지난 10월 12일 평양에서 합의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① 제 1 차 남·북체육회 담당 1990년 11월 29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한다.

② 회담 의제는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제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경기대회, 제

3회 삼지연 동계아시아경기대회 및 기타 주요 국제경기대회에 쌍방이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문제로 한다.

- ③ 남·북통일 축구대회의 정례화 문제와 기타 남·북체육교류 문제는 위의 남·북체육회담에서 합의 결정한다.

이와 같은 합의는 비록 스포츠 차원이기는 하나, 최근 해빙무드를 타고 있는 남북한 현안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각 분야에 걸친 체육확대의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을 수 있었다. 또 점진적인 접근을 통한 북한사회의 개방을 유도하려는 우리측 입장에서도 북측과의 합의서 교환은 고무적인 사태발전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두차례에 걸친 축구직교류는 상호 찾은 접촉을 통해 공통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웠다.

양측은 비록 접근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기는 했으나 통일을 위해 스포츠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공통인식을 갖게 됨으로써 외형적인 합의도출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당초 합의가 예상됐던 남북통일 축구경기의 정례화 문제는 합의사항 발표에서 제외되어 실망을 안겨 주었다. 북측은 실무 접촉 과정에서 당초 정례화는 안하더라도 적어도 다음대회 개최에는 합의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막판에 태도를 바꾸고 말았다(체육청소년부, 1991a).

따라서 축구교류의 정례화 문제는 단일팀 구성문제와 함께 체육회담에서 논의되어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북측의 이같은 입장변화는 스포츠와 스포츠 외교적인 문제들을 연계시키는 2중 전략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남북체육교류의 지속화를 피하기 위하여 우리측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남북체육회담에 임하려는 자세를 보여야만 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주요 국제경기대회에서의 남북단일팀 구성문제를 위한 체육회담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측이 북경 아시아경기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회담때 우리측의 수석대표로 활약한 경험이 있는 대한올림픽위원회 장충식 부위원장과 수석대표로 하는 5명의 회담대표단을 구성하였고, 북측역시 북경대회 단일팀 회담시 수석대표로 활약한 북한 올림픽위원회 김형진 부위원장과 수석대표로 임명하여 회담에 임하도록 했다.

국제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이 최종 합의를 끌어내기 까지는 4차의 회담을 개최하여야만 했다. 본 남북체육회담에서 합의된 남북단일팀구성 참가 대회명은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제 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이며 이들 두 대회의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선수의 선

발문제, 선수의 훈련문제, 그리고 선수단의 단장문제 등을 합의내용에 포함시켰다. 1991년 2월 12일 오후 5시 마침내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남북은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제 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 합의서에 역사적인 서명이 이루어졌다.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를 위한 남북 단일팀 구성의 합의에 의거하여 남북실무위원회 회담이 수차례에 걸쳐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어져 마침내 단일팀 구성이 실현되었고 역사적인 남북 단일팀으로 국제대회에 처음 참가할 수 있었다.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는 91. 4. 24~5. 6까지 일본 지바시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선수권대회에서 남북단일팀은 여자 단체전에서 우승하여 세계제패의 패거를 올렸다. 남북선수들은 짧은 기간동안의 합동훈련이었지만 예상외로 융화를 잘해 넘으로써 지난 73년 사라예보에서 한국이 우승을 차지한 이후 18년만에 여자단체우승을 안게 된 것이다.

제 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는 91. 6. 14~30까지 포르투갈에서 개최되었다. 이들 남북단일 청소년 축구팀은 시합출전에 앞서 2차례에 걸쳐 평가전을 가졌으며 남북왕래에 의한 합동강화훈련의 기회도 가져 필승을 다짐하였다.

7천만 겨레의 주시 속에서 대회에 참가한 코리아팀은 선전하여 8강진입이라는 기대이상의 성적을 올렸다. 코리아 축구팀은 조 추첨결과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아일랜드와 같은 조에 속하게 된데다, 불과 한달여의 팀워크훈련으로도 8강진입의 성과를 올린 것은 큰 성과였다. 4강진출을 위한 대 브라질전에 패하여 비록 “4강신화”的 재현은 이루지 못하였지만 코리아팀이 거둔 성과는 결코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코리아팀의 더욱 값진 소득은 남북협력의 가능성을 다시한번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이미 탁구단일팀의 세계제패가 증명한 바 있지만 축구의 경우는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3. 남북체육교류의 평가와 전망

(1) 남북체육교류 필요성의 인식화

남북체육교류의 초기 접촉단계인 60년대와 70년대의 교류는 이렇다 할 성

과를 올리지 못하였다. 1964년에 개최된 제18회 동경올림픽대회와 1979년 평양에서 개최된 제35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계기로 하여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수차례의 접촉을 가졌지만 결국 남북 쌍방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회담은 성과없이 결렬되고 말았다.

그러나 초기접촉단계에서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했지만 남북 양측이 체육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공통인식을 더욱 굳게한 계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남북체육회담의 활성화

남북체육교류의 중기접촉단계인 80년대의 교류는 성과측면에서는 그리 크지 않으나 접촉활동 측면에서는 매우 활발했던 단계였다. 이 단계에서의 4개 큰 국제행사는 로스앤젤레스 올림픽대회(1984), 서울아시안게임(1986), 서울올림픽대회(1988), 그리고 북경아시안게임(1990)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이들 국제행사 중 88서울올림픽대회는 남북체육교류의 차원을 넘어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에 그 행사의 중요성은 막중했다. 따라서 한국은 88서울올림픽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의 일보를 내딛기 위하여 남북체육교류에 최대 역점을 두었다.

결국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체육교류의 활성화의 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여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는 북한 선수단이 끝내 참가하지 않은채 막을 내려야 했지만 서울올림픽대회는 단순한 국제스포츠행사로서의 차원을 넘어 동서화합의 한마당을 이루었고 과학올림픽, 문화올림픽으로서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서울올림픽 불참은 우리에게 분단의 실상을 다시금 절실히 확인시켜 주었다. 국제적으로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놀라움을 표시하면서도 분단 한국이 지닌 고통을 실감케 하였다.

서울올림픽이 북한의 참가없이도 동서화합의 장을 이룬 가운데 성공리에 종료된 사실은 북한이 주장해 온 “분단국가에서의 올림픽개최 불가론”이나 “반체 자유화이론”的 명분을 국제사회에서 현실적으로 퇴색시켰다.

특히 서울올림픽을 계기로한 한국의 북방정책의 활발한 진전은 공산권 국가들의 한국에 대한 현실인정을 바탕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새로운 국제협력의 질서를 형성케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대한올림픽위원회, 1991:364).

남북분단사에 있어 서울올림픽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보다도 남북한 간에 계속되어 온 적대적 경쟁관계를 종식시키는 전환점이라는데 있다. 한국 정부의 「7·7 특별선언」은 바로 이 같은 역사의 전환기에서 현실적으로 남북간의 대치구조를 청산하려는 의지의 천명이라 하겠다.

북한의 서울올림픽 불참은 남북관계의 실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 제 24회 서울올림픽대회의 유치과정과 유치확정 이후에 보여 준 북한의 일련의 태도는 남북한 관계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말해 준다. 북한이 불참한 가운데 서울올림픽이 치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남북한 관계의 역경이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산적하고 있음을 반증해 주고 있다.

북한의 서울올림픽 불참은 남북한 관계전전의 추세에 기본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었지만 단기적으로는 모처럼 기대했던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환의 계기를 무산시켰으며 나아가 관계개선의 노력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시기를 그만큼 지연시켜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올림픽 불참으로 말미암아 북한 스스로 국제적 고립화를 자초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지만 국제적 개방 추세에 적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가 되어 있지 않은 그들로서는 그같은 회생을 감수하면서라도 시간을 벌어야 했던 입장도 간파할 수 없다.

즉, 북측으로서는 남북에서 열리는 올림픽대회의 영향이 북으로 신속히 과급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그들이 선택한 당면 방안이 서울올림픽 불참이며, 사후방안이 다름아닌 제13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평양)의 추진이었다.

올림픽 불참을 정당화하는 직접구실은 바로 공동주최 주장이었으며, 올림픽불참이후 주민사기진작을 위한 사후처방으로서는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선택하는 것이었다. 북한은 이 두 가지 카드를 갖고 서울올림픽이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될 때 올림픽 공동주최를 주장했으며 대내적으로는 세계청년학생축전의 준비를 강행함으로써 서울올림픽으로 인한 주민들의 개방적 참여를 차단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그들의 경직된 정책노선을 계속 지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종료를 계기로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대내외적 위상격상에 북한은 더 이상 폐쇄체계 속에서 온존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치고 있음을 깨닫

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상황속에서도 남북대화에 임하는 북한의 태도는 남북간의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관계를 개선하려는 데 관심을 쏟기보다는 주한미군의 철수나 우리측 체제의 약화를 피하는 데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측으로서는 88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종료했고 내외의 정세가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의 일대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남북간의 체육문제에 대한 해결에도 새롭게 접근하여야만 했다.

우리는 남북체육회담에 임할때 그것은 남북이 분단된 상황속에서 체육분야에서 나마 친선교환경기를 개최하는 등 교류를 실현시키고 가능하다면 올림픽 대회를 비롯한 각종 국제경기대회에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훌륭한 기량과 단합된 모습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북한은 1972년 분단이래 처음으로 제20회 뮌헨 올림픽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으며 남북이 각기 개별팀으로 올림픽에 참가한 가운데 남북의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남북체육교류회담을 위해 쌍방 대표가 서울·평양을 방문키로 하고 연락은 남북조절위원회를 통해 갖기로 했다는 내용의 공동성명까지 발표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실천적 조치가 따르지 못한 채 사장되고 말았다.

우리측은 그 후 서울에서 주요 국제경기대회나 행사가 개최되는 것을 계기로 남북간의 체육교류에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조치로써 북한측의 참가를 촉구하는 서한을 10여 차례에 걸쳐 발송했지만 북한측은 이에 대해 가부의 회신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측은 1979년 4월 평양에서 열리는 제35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개최된 남북탁구협회 대표회회담, 1981년 6월 19일 대한올림픽위원회의 남북체육회담 제의 서한 등에서 남북체육교류의 실시를 북한측에 촉구했지만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지 못했다.

그 후 대한올림픽위원회는 남북한간에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체육분야에서나마 교류와 협력을 구축함으로써 민족적 화합의 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을 강조하면서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포함한 향후의 각종 국제경기에 단일팀으로 참가할 것과 이를 위해 체육교류를 조속히 실현시킬

것을 누차 제의하였다.

남북체육교류실현을 위한 이같은 우리측의 일관된 추진은 1984년 4월과 5월 판문점에서의 남북체육회담에서도 명백히 제시된 바 있다. 이어 5월 25일 개최된 제3차 회담에서 우리측은 남북한 교환경기 개최와 체육인 상호왕래, 체육기술자료의 교환, 기자들의 상호방문 등 7개 항의 체육교류방안을 북한측에 제의했으나 결국 회담자체마저 무산되고 말았다.

로잔 남북체육회담과 북한의 서울올림픽 불참 경협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의 남북체육교류에 성급한 기대를 거는 것은 무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폐쇄체제 고수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내외의 여건을 감안할 때 그 교류는 체육과 스포츠분야에서부터 실현될 수 있는 공산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남북체육교류의 실현이야말로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신뢰회복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 문화분야에서의 민족적 이질화를 방지하고 동질성 회복을 기할 수 있는 첨경이며 나아가서는 민족공동체를 회복·발전시키는데 있어 가교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대한올림픽위원회, 1991: 377).

(3) 국제경기 단일팀 구성회담의 본격화

북한은 역사적으로 스포츠 분야가 지니고 있는 특성에 편승하여 국제경기에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문제를 교묘히 이용해 왔다. 분단직후의 남북정치협상과 6·25후 군사정전협정에 따른 제네바 정치회담을 예의로 한다면 남북체육회담은 남북대화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남북한 간에는 이미 50년대에서부터 올림픽대회 참가문제를 둘러싼 체육외교상의 경합이 표면화 되었었다.

한국은 1947년 6월 IOC에 가입한 이래 줄곧 올림픽대회에 참가함으로써 정부수립 이전부터 정통성에 입각한 체육외교의 기틀을 다져 왔다. 이에 비해 북한은 1952년 헬싱키 올림픽대회에 소련이 참가하면서부터 IOC에의 가입을 시도, 1957년에는 북한지역내 올림픽활동을 잠정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북한올림픽위원회에 대한 당시 IOC의 결정내용은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명의로 남북혼성 단일팀을 구성하여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이었으며 이때부터 단일팀 문제가 남북체육회담에서 하나의 주요의제로 제기되

었던 것이다.

북한은 이 무렵인 1960년 8월 김일성 연설에서 이른바 남북연방제통일 방안을 제시하고 단일팀 문제를 연방제통일방안에 의한 체육분야에서의 ‘합작’ 실현을 위한 정치적 전략으로 이용하려 했다.

남북한간에 단일팀 구성문제를 처음으로 논의한 것은 1964년 동경올림픽 대회를 앞두고 1963년 1월과 7월 사이에 로잔과 홍콩에서 3차례의 남북체육회담을 가진 때였다.

1962년 6월 모스크바 IOC총회는 동경대회에 남북한 단일팀 구성 참가를 KOC에 권고하고 KOC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남북한이 개별팀으로 참가하도록 한다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또한 동 총회에서는 북한올림픽위원회를 감정적으로 올림픽회보에 등재도록 함으로써 사실상의 감정적 가입을 승인했다.

이 회담에서는 단일팀 구성을 위한 호칭문제, 국기문제, 국가문제, 선수선발, 예선실시 등 광범위한 문제들이 토의대상이 되었으나 국가를 ‘아리랑’으로 한다는 등 부분적인 합의가 있었을 뿐 호칭문제에서부터 근본적인 견해차이를 노정한채 회담은 결렬되고 말았다.

그 후 북한은 1969년 6월 폴란드 IOC 총회에서 DPRK의 호칭으로 IOC에 정식가입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두고 볼때 북한은 적어도 60년대까지는 단일팀 문제를 국제체육사회에의 참여, 구체적으로는 IOC에의 정식가입과 정회원으로서의 권능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온 의도가 드러난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그들은 단일팀 문제를 남북한 관계에 있어 그릇된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기도를 더욱 노골화 시켜왔다. 그것은 1972년 뮌헨올림픽을 불과 한달 반 앞두고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을 제의했던 설례와 1979년 2월 평양에서 개최될 제35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불과 1개월여 앞두고 단일팀 구성회담을 제의, 우리측 선수단의 참가를 저지하려고 한테서 명백히 입증되었다.

또한 북한은 1979년 12월에도 1980년의 모스크바 올림픽대회에 남북한 단일팀 구성을 위한 회담을 제의, 당시 10·26사태 직후의 국내정세에 편승하여 했는가 하면 1984년 3월 30일에는 베마사건 발생 불과 6개월 미만의 시점에서,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단일팀 참가를 위한 회담을 제의해 왔다. 당시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은 엔트리 마감을 불과 2개월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이 단일팀 문제에 가장 큰 비중을 두어 이용한 사례는 1985년 6월 이후로 잔 남북체육회담에 호응하면서 제24회 올림픽대회의 ‘공동주최, 단일팀 구성’ 주장을 내세운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제2차회담이 끝난 이후부터 공식회담석상에서는 단일팀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그러나 IOC측이 제시한 남북한 선수단의 개·폐회식 동시 입장 방식을 분단지 항적이라는 이유로 끝내 반대하고 서울·평양에서 대동한 개·폐회식을 가질 것을 고집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만약 회담을 통해 일부 경기종목의 북한개최가 받아들여졌을 경우에는 단일팀 문제를 또다시 제기하였을 가능성이 높았이다. 북한은 서울올림픽 불참은 그들의 이같은 의도를 결과적으로 입증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1991:379).

(4) 남북통일축구대회의 정례화

남북양측은 1990년 10월 한 달 한반도를 들뜨게 만들었던 「남북통일축구대회」를 10월 11일 평양과 10월 23일 서울에서 개최됨으로써 남북관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데 성공하였다. 45년만의 남북한 왕래인 이번 행사는 분단이후 첫 본격교류였으며 분단이후 사실상 최초의 남북체육교류 실현이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남북 통일축구대회는 1946년의 “경평 축구대회”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남북간 직접 경기로서 남북체육교류의 본격적인 추진의 계기가 되었다. 북경 아시안게임에서의 남북 공동응원과 통일축구 경기에서 보인 승부에 집착하지 않는 선전, 관중들의 편을 가르지 않는 응원과 격려 등은 45년의 단절을 극복하고 남북간의 이질감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아울러 남북통일 축구대회는 체육부문이외의 기타분야에 대한 남북교류 추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 분단이래 최초로 향후 문화, 예술, 경제교류 추진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였다.

남북체육교류의 실현은 남북간의 상호이해 도모와 신뢰분위기 조성, 체제와 이념을 초월한 민족연대감 형성으로 통일기반 구축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남북교류에 관한 남측의 「7·7선언」에 대한 가시적 성과로 볼 수 있다. 이번 남북통일축구의 탄생은 북경 아시안게임에사 남북 공동응원과 학동훈련 등 북경의 남북한 화해무드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추진과정

에서 양측의 의견차로 무산될 뻔 하기도 했으나, 90년 9월 28일 극적으로 합의되어 남북스포츠 교류의 물꼬를 뒀다. 또한 축구와 다른 종목의 남북교류를 북한측과 논의 함으로써 모든 스포츠 종목의 남북교류 가능성을 높여 주었다.

분단 45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된 남북통일 축구대회 평양 1차전도 성공여부에 대한 당초의 우려를 말끔히 씻고, 15만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공적으로 치뤄졌다. 남북한 선수들의 선전못지 않게 관중들도 양팀을 골고루 응원해 남북한 스포츠 교류의 앞날을 더욱 밝게 해주었다. 45년 만에 서울에 처음 온 북한의 선수들도 우리의 밝고 활달한 모습과 발전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었다.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4박 5일 동안의 일정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회담과는 달리 잔치분위기를 이끌어내면서 남북국민들에게 통일의 열기를 피부로 느끼게 했고 통일 가능성을 어느 때보다도 실감나게 만들었다. 한편으로 양측선수단은 여러분야에서 사고방식과 인식의 심한 차이를 노출, 오랜 분단을 실감케 했지만 양측관중의 호의적인 반응 등 교류확대의 필요성은 더욱 뚜렷이 부각됐다. 금번의 남북통일축구 대회는 남북 모두 「통일로 가는 지름길」「공존공영을 위한 초석」이라고 높이 평가될 수 있어 앞으로 체육만큼은 남북화합의 큰 울타리 안에서 움직여 나갈 것을 분명히 했다.

양측은 서울체류기간 중 남북 체육장관회담을 갖고 90년 2월 중단됐던 남북체육회담이 재개에 합의하고 제41회 세계탁구 선수권대회(91년 4월, 일본), 92년 바르셀로나 하계올림픽, 95년 동계 아시안게임(북한 삼지연) 등 3개 대회에 단일팀을 구성해 파견키로 한 평양대회 당시의 남북체육장관간 합의사항을 재확인함으로써 서울 경기의 의미를 나름대로 부각시켰다.

이같은 합의는 비록 스포츠 차원이기는 하나 최근 해빙무드를 타고 있는 남북한 현안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각 분야에 걸친 교류확대의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을 수 있다. 또 점진적인 접근을 통한 북한 사회의 개방을 유도하려는 우리측 입장에서도 고무적인 사태발전으로 분석되고 있다. 두 차례에 걸친 축구 직교류는 잦은 접촉을 통해 공통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웠다. 양측은 비록 접근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기는 했으나 통일을 위해 스포츠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공통인식을 가져 의형적인 합의 도출에 성공했다(체육청소년부, 1991b:208-209).

그러나 북한은 당초 합의키로 한 남북통일축구경기의 정례화 문제는 합의 사항발표에서 제외하여 실망을 안겨주었다. 북측은 실무접촉 과정에서 당초 정례화는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차기 대회 개최에는 합의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막판에 태도를 바꾸고 말았다. 따라서 축구교류의 정례화 문제는 단일팀 구성문제와 함께 향후 체육회담에서 논의되어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북한측의 이같은 입장변화는 스포츠와 스포츠 외적인 문제를 연계시키려는 이중 전략으로 풀이할 수 있다.

(5) 남북단일팀 구성의 실현화

남북체육회담 때마다 자주 거론되어 오던 국제대회 참가시 남북단일팀 구성의 문제는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었다. 4차에 걸친 남북체육회담을 거쳐 91년 2월 12일에 합의 서명된 “세계 탁구선수권대회”와 “세계 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참가를 위한 남북단일팀 구성은 남북체육교류 사상 남북통일축구대회 이외에 또 다른 획기적 업적의 하나로 평가될 수 있다. 남북 단일팀 구성의 성사는 남측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북측의 입장을 이해하고, 양보와 아량 그리고 타협의 정신을 발휘한 끝에 성사된 것이다.

탁구와 축구선수들의 분단허물기는 하나의 작은 출발에 불과할 따름이다. 이같은 남북의 융화가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제6회 세계 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와 같은 단발성 행사로 그치고 만다면 그 의미는 과소평가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노력이 다른 종목의 스포츠로 확산되고, 나아가 여타 분야로 확산될 때 통일을 앞당기는 역사적인 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남측은 탁구와 축구종목에서의 코리아팀 성사를 계기로 우선 비정치적 분야인 스포츠교류부터라도 활발하게 추진시켜 나갈 가능성성이 있다. 북측이 순수한 입장에서 체육교류에 임한다면 지난해 서울과 평양에서 열려 뜨거운 호응을 받은 바 있는 통일축구대회 정례화에 동의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다.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은 규모도 크고 정치적 의미도 다른만큼 쉽사리 이루어질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탁구와 축구의 경우를 거울삼아 남북간 불신의 벽을 허물고 보다 전향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임한다면 결코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체육청소년부, 1991a).

비록 정치와 경제적 측면에서 남북간 격차와 체제·제도의 상이함 때문에

남북교류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 하더라도 스포츠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는 상대적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하는 등의 “작은통일”이 스포츠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로 확산되어 나갈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탁구와 축구에서 보여준 이해와 양보, 협력의 의지와 그것들이 가져다 준 성과를 감안하여 대북접촉에 임한다면 모든 분야에 걸쳐 남북관계는 보다 부드러워지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앞당기는 주춧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체육교류의 방안

최근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이후의 남북한관계는 실질적인 남북 교류·협력시대에로의 진입을 예고하고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소련 및 동구권의 급격한 변혁에 따른 충격으로 인해 사회주의 체제의 동요를 염려하게 된 북한이 체제 수호를 위해 위축된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지만, 점차 체체내적(體制內的) 요구를 소화시켜 나갈 방도의 모색을 위해서도 남북 교류·협력의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북한이 이같은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어떤 형태로든 수용하여 점진적으로 북한체제의 개방을 시도하게 된다면, 남북 교류·협력시대의 본격화를 가져오는 동시에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이학래 외, 1991:23).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의 증진을 위해서는 여러 분야와 다각적인 채널을 통하여 교류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스포츠는 정치 군사적인 대결과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분단상황 속에서도 비정치적인 분야에서의 인적교류, 기술교류, 정보교류를 가능케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올림픽 이념을 보더라도 정치적 이념을 초월하여 인종, 종교, 관습, 언어, 문화 등의 차이에 구애됨이 없이 세계평화와 국제친선을 추구하는 것을 그 근본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비정치적 분야인 체육과 스포츠 분야에서의 남북 교류·협력은 남북한간의 긴장완화 분위기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당위성의 확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현실적인 의미로 전환시켜 나가는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과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남북 체육교류가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제정치적 변화를 포함한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른 객관적 조건이 구비되어야 하고 남북이 이를 통해 다같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주관적 조건, 즉 남북 쌍방간에 날카로운 대립의 지속보다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긴장을 완화시키고 민족동질성을 유지·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측면과 비경제적 측면 모두 어떤 공통적 이해관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같은 주·객관적 상황조건이 합치될 때는 교류가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주·객관적 상황조건이 합치될 때는 교류가 쉽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어느 한가지 상황만이 돌출할 때는 교류가 상당히 불안정한 형태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

그 동안의 체육회담 과정을 보면 대부분 객관적 상황 요구에 따른 체육교류, 즉 가장 협소한 분야인 국제대회에의 단일팀 구성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북한이 경제난의 극복과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탈피 등을 위한 개방정책 추진 등이 이루어질 경우 남북 체육교류를 위한 주·객관적 상황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므로, 우리로서는 이를 대비한 「남북 체육교류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이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야만 할 것이다(이학래 외, 1991:164).

향후 남북 체육교류 추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 방향에서 그 정책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첫째, 남북체육교류는 기존의 스포츠 교류의 범위를 넓혀 보다 폭넓게 확대되어 가야 한다.

스포츠교류는 체육교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스포츠교류가 체육교류를 전적으로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체육교류는 스포츠교류 이외에도 체육이 목표로 삼는 다양한 가치를 실현시키는 제반 활동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보등의 교환을 통해 폭넓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남북 체육교류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남북 체육교류는 현재 남북 스포츠교류의 형태로서만 시도되고 있지만, 본격적인 체육교류가 실현되려면 위에서 언급한대로 체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가치 추구, 예를 들면 남북한 주민들의 체력증진, 건강, 테크레이션, 공동체의식 함양 등과 이에 대한 정보 및 연구성과 교환 등에 이르기까지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이학래 외, 1991:

161).

둘째, 남북 체육교류는 정부가 아닌 민간차원에서 체육계의 주도적 역할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동서독의 경우에도 서독 정부는 체육교류에 필요한 법적·재정적 지원을 하였지만, 국가차원이 아닌 민간 스포츠협회 차원의 교류라는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민간스포츠 기관의 활동에 간섭하지 않는 가운데 역할 분담이 조화를 이룰 수 있었다(이학래 외, 1991:164-165). 따라서 향후 남북체육회담에 체육계의 적극적 참여 내지는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며 그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남북 스포츠교류는 물론 지금과 같이 정부 차원에서의 단일 창구에 의해 추진되어야 하겠지만 보다 바람직한 것은 체육계가 주도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체육회담을 체육계에서 주도하여야 하는 이유는 체육회담이 남북관계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을 수는 없지만, 이 부문의 전문성과 실질적 의미를 담고 있는 체육계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체육회담과 체육교류 방안 모색을 위한 체육계 자체의 체계적인 준비와 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그 동안의 남북 관계가 사회 각 분야의 능동적인 참여를 혀용할만큼 다변화되지 못했고 최근의 이같은 변화 조짐도 전체적인 남북관계의 질적 고양(高揚)을 의미하기보다는 북한의 전술적인 태도 변화에 단기적으로 대응해 온데서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현상적인 차원의 변화라 하더라도 이같은 변화가 내면화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보다 주도면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남북 스포츠교류의 현실적 의미와 활성화를 위한 대안 모색이 강조되어야 한다.

셋째, 남북체육회담과 체육교류는 그 교류의 가능성 측면에서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추진되어야 한다.

체육회담과 체육교류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수준은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으나, 앞으로 보다 충실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체육회담의 형식에 얹매이는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인 체육교류가 지속될 수 있는 방향으로 흐름이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사실은 남북체육교류가 지니는 고유한 목적과 가치가

무엇이어야 하느냐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체육회답이 남북관계, 즉 남북간의 체제경쟁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체육회답은 거듭되어도 체육교류는 실현되지 못하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비록 금년에 들어와서 남북간에 축구와 탁구 단일팀의 구성이 이루어졌지만 그 성과가 보다 확대된 체육교류의 가능성으로 연결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결과는 마찬가지인 셈이다. 따라서 남북 체육교류의 진정한 의미실현을 위해서는 체육교류가 지니는 본질적 의의를 이해하고 이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 노력이 가시화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남북 체육교류의 추진 방향과 접근 원칙이 정립되어야 한다.

남북 체육교류는 남북한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민족적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의도적으로라도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남북 체육교류 역시 다른 교류와 마찬가지로 교류의 가능성보다는 필요성의 바탕위에서 장·단기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해야만 한다. 그러나 체육교류가 갖는 특성은 다른 교류보다 국민적 관심이 크게 집중될 뿐만 아니라 승부의식 때문에 의외의 감정대립이 파생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접근하는 방향과 원칙이 분명히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즉, 남북 체육교류는 적어도 상호동등성의 원칙, 상호보완성의 원칙, 상호유익성의 원칙, 상호형평의 원칙, 상호공존 내지 체제불간섭의 원칙, 접근성의 원칙 등이 존중되는 가운데 추진되어야 한다(이학래 외, 1991:165).

다섯째, 남북 체육교류는 스포츠의 비정치적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서독의 경우에도 동독은 스포츠교류를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려고 여러 번 시도하였으나 서독의 체육연맹이 교류 자체를 지연시키면서까지 이에 불응하였던 것이다. 서독은 스포츠교류를 민족통합 정책의 일환으로 삼고 체육교류 진행시 동독에 유리한 종목을 우선 개설하게 하여줌으로써 동독이 호응하도록 유도하였고, 그 결과 동독 정부는 스포츠교류의 정치적 이용 기도를 포기하고 「동독 체조 및 체육연맹」에 스포츠교류를 전담시킴으로써 통독에 이르기까지 양독간 스포츠교류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계속해 왔던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체육교류를 정치적 타결의 수단으로 삼기보다 순수 체육교류를 통해 북한이 그들 나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면서 체육교류 본연의 가치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이학래

의 1991:165).

여섯째, 남북 체육교류는 단계적·점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남북한의 체육분야에 관한 교류를 시도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일종의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그것은 우선 가능한 부문에서부터 교류를 시도해 나간다는 전제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남북 체육교류는 남북 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이데올로기적—비경쟁적 부문(제 1 단계)→비이데올로기적—경쟁적 부문(제 2 단계)→이데올로기적—비경쟁적 부문(제 3 단계)→이데올로기적—경쟁적 부문(제 4 단계)으로 점진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이학래 외, 1991:165).

일곱째, 남북 체육교류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활성화 추진방안이 적극 도입 운용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남북 체육교류 연구를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남북 체육교류에 관한 추진전략이 수립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능이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체육교류의 책임과 권한을 맡을 수 있는 전담기구의 창설이나 확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체육교류 분야의 세분화에 따른 각 부문별 전문기구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전담기구를 우선 민간단체인 대한체육회에 설치하고 각 대학의 체육연구소와 밀접한 상호연관속에 남북 체육교류의 추진전략수립과 추진방안의 모색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남북 체육교류업무를 전담할 전문가의 양성

남북한 체육교류의 증진은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운용해 간 수 있는 전문가의 양성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와 실무자를 지속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크다. 특히 남북 체육교류의 대상인 북한 체육에 대한 연구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체계를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문제가 시급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전문가 양성과 지원책이 꼭넓게 마련되어야만 할 것이다.

③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남북 공동기구의 설치

남북 체육교류의 창구를 민간차원에서 단일화하기 위하여는 남측의 대한체육회(대한올림픽위원회)와 북측의 북한국가체육위원회(북한올림픽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쌍방 동수로 구성되는 가칭 「남북체육공동사무국」이 설치될

수 있을 것이다. 본 기구는 남북 체육교류에 관한 제반사업의 운영과 관리를 통해 남북 체육교류의 추진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결정하여 이를 추진해 나간 수 있어야 한다.

④ 남북 체육교류사업의 다양화와 구체화

남북 체육교류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단계적인 추진 계획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남북 체육교류사업에서 고려될 수 있는 것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남북체육회담의 분기별 정례화
- 국제경기 남북 단일팀 구성
- 남북 체육정보자료의 교환
- 남북 체육연계의 학자, 행정가 및 경기인 상호교환 방문
- 민속경기 공동 개발 연구
- 남북 체육협정의 체결
- 남북 통일축구대회 외에 교환경기 종목의 증가
- 북한 선수단 한국체류 비용의 부담
- 겨울철에 북측 선수단에게 남쪽 훈련장의 제공
- 스포츠용 기구의 남북 협작 개발
- 체육·스포츠 관련 국제학술회의 공동개최
- 남북 코치의 공동 강습회 개최
- 남북한 대전경기에 대한 합동 TV 중계
- 일부 종목에 대한 남북한·중·일 4개국간 교환경기 개최
- 남북을 잇는 마라톤 경기와 자전거 도로 경기 개최
- 북측 체육시설 확충에의 재정지원
- 남북 대표선수 외에 직장 및 학생선수의 친선 교환경기
- 비무장지대에서 남북 체육대회 및 각종 친선시합 개최
- 국제대회시 남북 합동응원단 파견
- 북한 청소년 우수선수 육성비의 지원
- 남북 체육기자의 상호방문 및 공동취재

참 고 문 헌

강신복 외

1985 「2000년을 향한 체육진흥 장기 기본계획」, 서울 : 서울대 체육연구소.

대한 체육회

1990 「대한체육회 70년사」, 대한체육회.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 대한올림픽위원회」

1989 「로잔느 남북 체육회 담백서」,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대한올림픽위원회.

이학태 외

1991 「남북 체육교류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서울 : 체육청소년부.

체육청소년부

1991a 「남북 체육교류 관련자료」, 체육청소년부.

1991b 「남북 통일축구대회」, 체육청소년부.